

EU집행위, PBA 당구선수 22명 제소 '기각' ... UMB "PBA에 대한 우리 결정이 옳았다"

기사입력 2020.06.29. 오전 07:00 최종수정 2020.06.29. 오전 10:46

EU Commission, Dismissed a lawsuit filed by 22 billiards players...

UMB, "Our decision on PBA was right"

First report: 2020.0629, 7:00 am final revised 2020.06.29 10:46

The Professional Billiards Association (PBA) lost its first European Union (EU) executive committee lawsuit in the history of billiards since the professional billiards has launched.

The EU Commission reportedly dismissed and closed a lawsuit filed by 22 players from the Professional Billiards Association (PBA) and the Korean Council of Billiards Players (KPBA) against UMB on the 22nd.

UMB said on its website that "The EU Commission has firmly acknowledged the status of the UMB and the direction of its application to the organization's laws and regulations," and reported "It means that all UMB's decisions on PBA organizations were correct."

The lawsuit erupted last year when the PBA was launched arbitrarily without consulting with UMB and KBF. Like most sports organizations, conflicts were inevitable because UMB and KBF rules had regulations such as "sanctions when participating in unauthorized competitions" and "no double registration."

In order for players wishing to participate in the PBA tour to avoid any damage, negotiations for overhauling UMB rules were essential.

However, negotiations were difficult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UMB schedules to simultaneously digest the PBA tour. It was not easy to find a

solution unless PBA would reduce the tour according to the UMB schedule, or UMB would give up some of its projects such as the three-cushion World Cup. Therefore, UMB kept its position that the suspension of qualification is valid until just before the launch of the PBA, while the PBA expressed its intention to "support players through strong legal action against UMB, including filing a lawsuit against European courts", and encouraged players to participate in the tour.

In the end, more than 120 UMB players, including Frederick Caudron, Eddie Leffens and Kang Dong-gung, were suspended when PBA went ahead with its first tour in June last year without negotiations being concluded.

When UMB implemented this suspension, PBA filed a complaint with the EU Commission last September against UMB for violating antitrust laws, claiming that "sports organizations have no right to monopolize athletes."

The complaint filed by PBA to the EU Commission is said to be based on anti-trust regulations such as Article 101 (No Joint Action) and Article 102 (No Abuse of Market Governors) among EU functional treaties.

In the past, the European Commission decided that several sport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Skating Union (ISU), had violated anti-trust regulations and revised their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corrective measures.

However, the PBA scandal has drawn keen attention to the background as the EU's executive committee ruled in favor of UMB. An official said, "the nature of the PBA crisis is different case because this is that private company arbitrarily established a professional billiard association and took players who are assets of UMB."

He said, "If any private company says that we have a lot of money to make a bigger competition and so ignore the schedule of sports organizations and ask to send players, is there any group that will accept it?"

Based on the UMB rule, players will be suspended for up to three years after being suspended for one year for participating in each unapproved competition. According to the outcome of the lawsuit, the punishment of players on the PBA tour will be valid until 2022.

엠스플뉴스 EU집행위, PBA 당구선수 22명 제소 '기각'... UMB "PBA에 대한 우리 결정이 옳았다"

기사입력 2020.06.29. 오전 07:00 최종수정 2020.06.29. 오전 10:46

17
17



UMB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PBA가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소송이 최종 기각 됐음을 알렸다.

[엠스플 뉴스]

프로당구가 출범한 이후 벌어진 당구 역사상 초유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소송에서 프로당구협회(PBA)가 패소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 프로당구협회(PBA)와 대한당구선수협회의(KPBA) 소속 선수 22명이 세계캐롬연맹(UMB)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UMB는 같은 날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알리고 “EU 집행위원회가 UMB의 위상 및 조직 법령과 규정에 대한 적용 방향성을 확고히 인정한 것”이라 밝히며 “PBA 대회 조직에 대한 모든 UMB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PBA가 지난해 UMB, KBF(대한당구연맹) 등 당구 종목 스포츠 단체와 대회 출전권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출범하면서 불거졌다. 대부분의 스포츠 단체와 마찬가지로 UMB와 KBF 규정에는 ‘승인하지 않은 대회 출전 시 제재’, ‘이중등록 금지’ 등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했다.

PBA 투어 출전을 희망하는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UMB 규정 정비를 위한 협상이 필수였다.

그러나 PBA 투어를 동시에 소화하기에는 UMB 일정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협상은 어려웠다. PBA가 UMB 일정에 맞게 투어를 축소하던지 아니면, UMB가 3쿠션 월드컵 등 사업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마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UMB는 PBA 출범 직전까지 “자격정지 징계는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지켰고, 반면에 PBA는 “UMB에 대한 유럽 각급 법원 제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 지원”의 뜻을 전해 선수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투어 출전을 독려했다.

결국,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PBA가 지난해 6월에 첫 투어를 강행하면서 이 대회에 출전한 프레데릭 쿠드롱, 에디 레펜스, 강동궁 등 UMB 소속 선수 120여 명은 무더기 선수 자격 정지를 당했다.

UMB가 이러한 제재를 실행하자 앞서 경고했던 대로 PBA는 “스포츠 단체가 선수를 독점 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EU 집행위원회에 UMB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PBA가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고소장은 EU 기능조약 중 제101조(공동행위금지)와 제102조(시장지배자의 남용행위 금지) 등 반독점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EU 집행위원회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를 비롯한 여러 스포츠 단체들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에 따라 해당 단체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PBA사태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UMB의 손을 들어주며 기각 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PBA 사태의 경우 단순 대회 개최가 아닌 사기업이 독단적으로 프로당구협회를 설립해 UMB의 자산인 선수들을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기업에서 ‘우리는 돈이 많아 더 큰 대회를 만들 것이니 스포츠 단체 일정도 무시하고 선수들도 내놓으라고 한다’라면 과연 가만히 있을 단체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UMB 규정에는 미승인 대회 1회 출전마다 1년씩 선수 자격이 정지되어 최대 3년까지 징계가 내려지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PBA 투어에 출전한 선수들의 징계는 2022년까지 유효한 상태다.

정이수 기자 januskor@gmail.com

▶[LG 김용의가 극찬한 '고박사' 식당을 찾아가다 \[스톡킹\]](#)

▶[\[별별별 랭킹\] 'MLB 최고의 송구' TOP5 \(영상\)](#)

© <엠스플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 엠스플뉴스

-
-
-
-
-

좋아요13

슬퍼요0

화나요3

팬이예요0

후속기사 원해요1